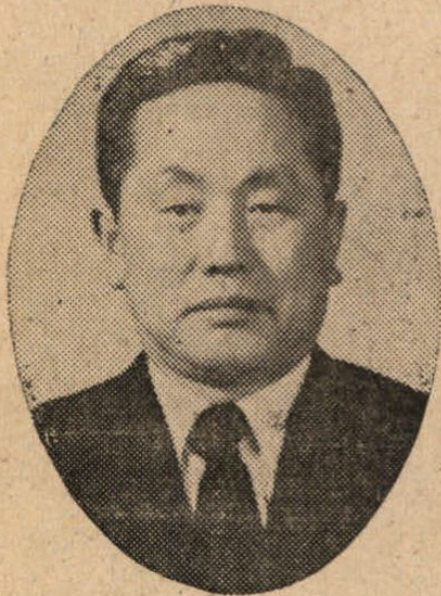


미래와 인간 상실



고 교장 이 동 옥

미래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미래」란 단순한 현재의 연장이 아니라고 한다. 체계있는 학문으로 연구할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게 되었다. 「인류의 위기」라던가, 「미래의 충격」이라던가 하는 책들을 통해서 「미래」는 현대인의 가슴을 압박하고 있다.

그 저자들이 말해주듯이 오늘의 미래는 어제의 미래와는 양상이 다르다. 어떤 학자들은 미래를,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지식의 폭발 시대를 한층 더 뛰어 넘는 과학의 발달과 보급—즉 새로운 발견과 발명으로 특색 지으려 하고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미래를 자원의 고갈과 단절에서 오는 절망성에서 인류의 절규를 미리 들어 보려 하고 있다. 자원의 고갈 현상은 사실상 1973년도 후반기에 비롯된 세계적인 「연료 위기」에서 그 징조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미래를 향하는 인류의 대행진이 「힘」의 고갈로 정지될 때가 오리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

과학의 고도한 발달과 그 보급이 오늘의 변화를 가져 왔다고 볼 때 지식의 양이 증가하는 속도가 날마다, 시간마다 가속해 가는 오늘 내일 어떤 변화가 새 발견과 새 발명을 따라서 올 것인가는 누구도 예견하기 어려울 것이다.

얼마나 많은 어제의 사람들이, 오늘을 사는 인간들이 달의 표면에, 바퀴가 달린 차를 몰고 다니며 이 구석 저 구석을 찾아 다니리라고 생각해 보았겠는가. 어제의 누군가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서로의 생리기관을 교

환해 가면서 살 것이라고 생각하였겠는가. 머지않아 사람들은 서로의 지체를 교환하여 쓰면서 살 날이 올 지도 모르는데.

이러한 가운데서 교육은 하루도 쉴 사이 없이 계속하여 가고 있다.

미래에 살 인간을 교육하기에 바쁘다. 내일의 주인공들을 교육하려는 방법이 너무도 다양해서 교단에 선 교사들이 찢절매고 있다. 부루너는 교육 과정을 「구조화」하면, 난해한 과정이라고 생각했던 내용도 쉽게 누구에게든지 가르칠 수 있다고 극언했다. 과학적인 학습 지도 방법으로 학습 내용을 「알도록」 구조화할 수 있다고 하는 뜻으로 해석된다.

러시아가 낳은 파브로브와 그 제자들, 또 미국의 스키너, 이들은 비둘기나 개의 실험에서 얻은 결과를 — 즉 과학적인 방법 — 인간 교육에 적용하여 학습의 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모양이다. 재미있는 것은 고도의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하면 인체 속에 있는 태아에게도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줄 수 있다고 하는 상상소설 같은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다. 이렇게 가다가는 모체에서 태어나는 영아가 유창하게 언어를 구사하며, 걸어서가 아니라 뛰어 나올 날도 머지 않은 것 같다. 마치 망아지나 송아지가 오직 알고 있는 외마디 소리 「엄마」만을 외치며 낳자마자 뛰어 다니는 것처럼, 아니 모체에서가 아니라 시험관 속에서 언어와 보행을 다 배워 가지고 고향을 치며 걸어 나오도록 인간을 키우고 가르칠 수 있다고 하는 날이 오지 않겠는가.

이러한 과학의 시대를 내다 볼 때 과연 놀라운 내일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또 반면에 앞서 말한대로 자원의 고갈과 단절에서 올 비극, 즉 벌써 지구상에 오늘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인류의 종말적인 울음소리를 들려 주고 있어 어두운 우리의 앞날의 보여 주고 있는 듯하다.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르는 식량의 부족, 대기와 음료수의 오염으로 인해 새로 생겨날 정신적 육체적인 질환 — 이런 현상 속에서 인간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논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생존 그 자체가 역겨운 일이 될 가능성도 많다. 인간이 인간을 대함에서 오는 기쁨보다는 내 생존을 저해하는 장애물로 대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자칫하면 과학이 인간을 인간 생존의 장애물로 생각하는 인간들을 기계로 사용하는 비극이 생겨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과학은 인간을 수단으로 하여 누가

누구를 위해 세웠는지 모르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폭발적인 위력을 한없이 발휘하며 인간을 구사할 것이다. 인간은 여기서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기계만도 못한 무기력한 노예로 격하되고 말 것이다. 아마도 이런 데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의 실존」을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서 절대적인 것이라고 절규하고 개인은 자기의 의지로 선택하고 그 책임을 지는 실존적 주체라고 강조하고 있는 듯하다.

나는 실존주의 철학에서 내 결론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의 절규 속에 담겨진 인간에 대한 너무나도 강한 애착은 「인간 상실」을 향해 달리는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공감을 일으키는 바가 적지 않다.

인간성이 상실된 미래를 생각해 보자. 몸서리가 쳐진다. 미래—고도로 발달한 과학이 인간의 의지를 이모 저모로 한없이 억누르는가 하면, 반면 인간의 극히 초보적인 생리적 욕구마저도 충족시킬 수 없는 상태로 인간을 몰아 놓아 종래는 인간을 질식하게 하고 아사하게 하는 때—인간성 운운은 극히 사치스러운 언어가 되고 말 것이다. 인간성을 상실한 사회, 그것이 곧 지옥이 아니겠는가.

기계의 노예가 작품이 되어 버린 미래의 인간상에서 우리 자신의 가련한 모습을 찾아 볼 때 오늘 우리는 진작 있어야 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음을 아쉽게 생각할 것이다. 과학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용을 때쓰며, 빈곤 앞에 무릎을 꿇고 벌벌 떨고 있는 인간들에게 옛날 희랍 신화에 나오는 프로메테우스의 인간을 향한 애정이 그리워진다.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 신의 노여움을 사면서도 인간을 위해 불을 훔쳐다 주었고 그 죄과로 일생 빙판에서 쇠사슬에 묶여 살아야만 했다고 한다. 얼마나 인간미가 감도는 옛말인가.

나는 지금도 부다가야의 보리수 밑에 앉아 도통하기를 기다리는 딱딱한 석가모니보다는 중생들의 생·노·병·사에 감히 극해 그 군중 속으로 달려가는 땀내나는 석가모니를 그려보고 싶다.

미래 세계는 우리가 원하든 말든 오게 마련이다. 오고야 말 내일이 그렇게도 인간성이 상실된 사회가 된다면 모름지기 로마를 피하여 도망가던 베드로 앞에 나타났던 예수가 다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인간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려고 그 죽음 같은 로마로 들어 가실 날이 오지 않겠는가고 몇번이고 몇번이고 마음에 되새겨 본다.